

40. 최초의 교회

신앙고백

찬 송 :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사도행전 2장 37-47절

말씀묵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열심히 모인 그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1.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42~47).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이루며 열심히 교제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있어,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며,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면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고전12:27) 그러므로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해도, 함께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42,46).

처음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것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행한 예배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42).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난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맺는말.

최초의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최초의 교회를 닮아 교제, 예배,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적용

한 주간 동안 교제, 예배, 기도 생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찾고, 바른 모습으로 고쳐 행하십시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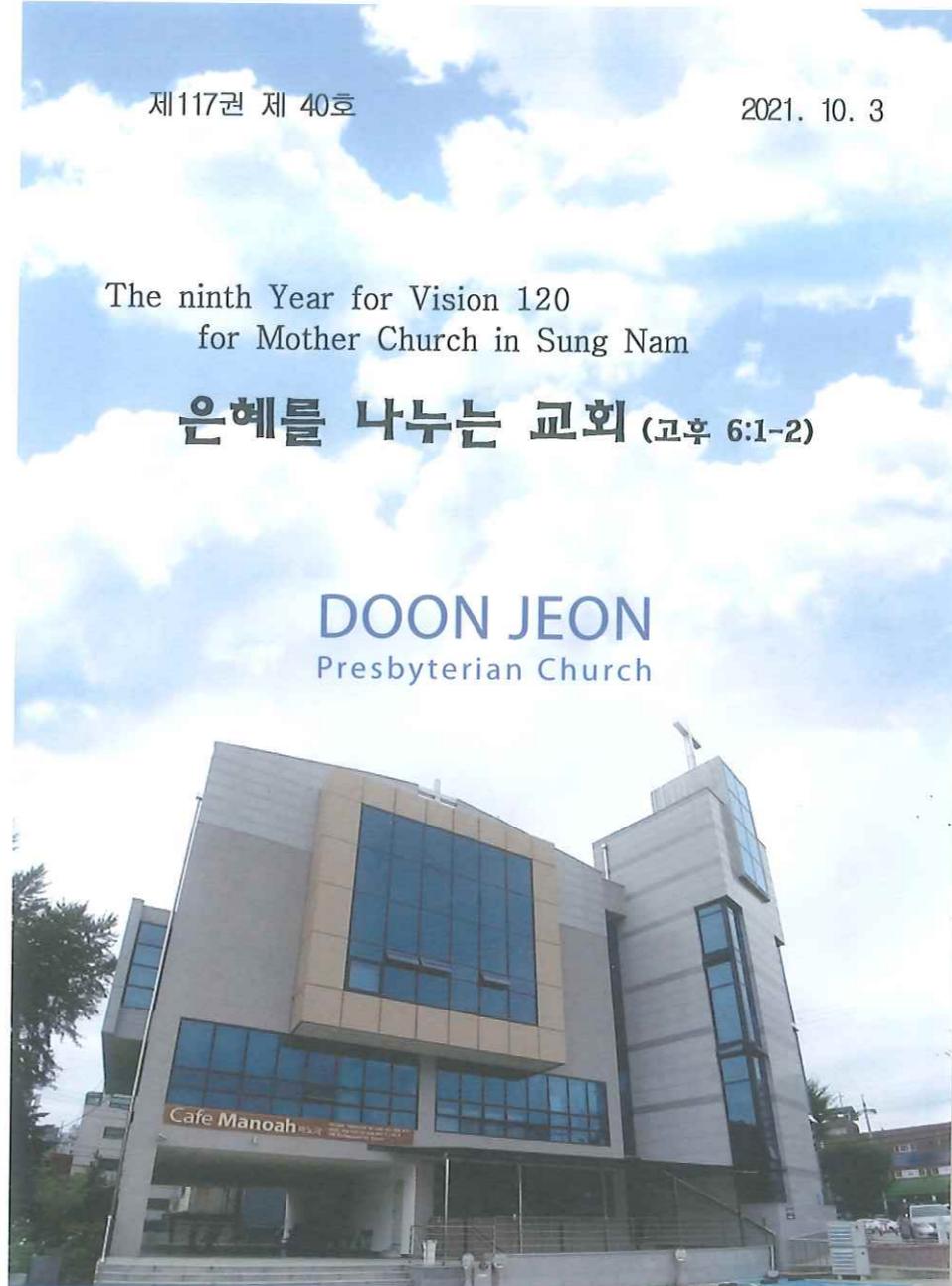
- 교회창립 117주년 기념주일**
오늘은 교회창립 1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새깁시다.
 -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중앙아시아선교(여기도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의회**
2021년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0예배 후에 있습니다.
 - 둔전아침묵상**
아침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둔전교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둔전교회’ 검색 → 채널추가
 - 릴레이 기도자 모집**
하루 30분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하세요.
 - 대입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보기도**
좌석에 부족된 대입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수험생: 김예찬, 심예은 / 취업준비생: 백승민, 안명균)
 -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2면 하단과 PPT 화면의 예배위원 안내를 확인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 새로 등록된 가족
안정환 성도 - 4목장(스스로)
 - ☐ 헌물
- 임근진성도·최광순권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 최진수·최영란집사 가정에서 추석명절 지역선교선물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 섬기는 이들

창립 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 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